

화순군,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공모사업' 선정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서 고인돌마을 경관개선 사업 추진 노후 일반 주택 콘크리트 담장·고채도 지붕 색채 등 개선

화순군이 전남도 주관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화순군은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 일원에 '고인돌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5억 원(도비 1억5000만 원·군비 3억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고인돌 문화자원과 연계한 정겨운 마을 경관개선 사업이다.

군은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 일반 주택의 콘크리트 담장과 고채도 지붕 색채 등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 세계겨석테마파크, 고인돌선사체험장, 흥남순 변호사 생가 등 주변 문화자원과 어울리는 관광인프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일하잡(JOB)센터 지역 기업 면접비 지원 호응

곡성군이 지역 내 기업 입사 면접비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군은 올해 3월부터 '곡성군 관내기업 면접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에 면접을 본 지원자에게 1인당 5만 원씩 최대 2회 면접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곡성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50명의 지원자가 면접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계속 지원자가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 연말에는 총 70명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곡성군 내에 있는 기업체에 면접을 본 뒤 면접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곡성군 일하잡(JOB)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면접비 지원을 받은 A씨(옥곡면, 40대)는 "비록 지원했던 기업에는 불합격했지만 그나마 면접비를 받아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마워했다. 기업체도 면접비 지원에 반색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 B씨는 "면접비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 중이다. 면접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교통비도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

보러 장성으로 갈까?

8일 저녁 7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장성군이 오는 11월 8일 저녁 7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를 연다.

'디톡스'는 몸 안의 독소나 노폐물을 없애는 작용을 뜻한다.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는 디톡스처럼 음악으로 관객들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없애주는 공연을 지향한다.

관소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우머와 재치, 해학을 전하는 소리꾼 남상일, 호소력 짙은 음색의 트로트 가수 박구윤, '보이스퀸' 최연화, 대뜸령상 수상에 빛나는 조영주가 출연해 환상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1인당 5000원으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예매는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장성군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예매나 방문, 전화 예매 모두 가능하다. 방문 및 전화 예약 문의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061-390-8599, 8578)로 하면 된다.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장성군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장성=김수권기자

담양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 참가자 모집

오는 16일까지 장애인 25명·저소득층 183명 등 총 208명

담양군은 2일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 참가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담양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으로, 장애인 분야 25명과 저소득층 분야 183명 총 208명을 모집한다.

지원 여행상품은 15만원 상당의 당일 상품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장애인 1, 저소득층 3)의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담양군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군민들이 아름다운 남도 관광지를 여행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박차

구례군은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훈련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지진 대응 훈련(22일) ▲현장훈련(24일)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상황을 대비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례군은 10월 27일 오후 2시에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를 위한 2차 컨설팅 및 실무회의를 가졌다.

실무회의에는 훈련에 참여할 구례군 13개 협업 부서 담당자, 구례경찰서, 순천소방서,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였고, 다중발접시설 지진 발생을 가정으로 한 대응 훈련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 목원대학교 최재명 교수로부터 훈련 실행계획서, 토론·현장훈련 기반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구례군 협업 부서와 유관기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로컬푸드 야외장터 운영 "주말 금성관에서 만나요"

나주배·배즙·채소류·가공품 등 30여종 농특산물 판매...이달 27일까지 매주 토·일 부스 운영



나주시가 주말 읍성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주로컬푸드 홍보전에 나섰다.

나주시는 이달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10시~15시) 금성관 앞에서 '로컬푸드 야외장터' 부스를 운영해 신선한 산지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나주시농업농촌진흥재단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야외장터는 8개 업체, 20여 농가에서 직접 재배·가공한 30여종의 싱싱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지난 달 29~30일 열린 첫 장터 부스에서는 친환경, 신선도를 최우선에 선별한 대파·상추·

고구마·가장·귀리·수수 등 각종 농산물과 배·사인머스켓 등 과일류, 배즙·유채유 등 가공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야외장터 인근 나주목문화관 바로 옆에는 한옥 건물 형태의 나주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금남점(금남와락, 나주시 금성관길17)이 자리하고 있다.

금남점에서는 나주배, 나주쌀을 비롯해 배·쌀로 만든 가공식품, 젓갈, 음료, 채소, 관광기념품(공예) 등 260여종의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2층에서는 탁 트인 읍성관을 바라보며 나주배로 만든 음료(에이드) 4종과 나주 농산물을 재료로 끓인 전동차를 맛볼 수 있는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야외장터를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먹거리인 나주로컬푸드 관측과 더불어 우리 지역 꼭 가볼만한 관광지 홍보를 겸하고 있다"라며 "로컬푸드와 소비자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관측 이벤트를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